

보도

파견·방문 교환학생 비율 모두 반토막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우리학교 국제화 지표 순위는 평가대상 85개 대학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2위를 비롯해 5년 간 꾸준히 1위와 2위를 오가던 성적 중 가장 저조한 결과다. 눈에 띄는 하락은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과 '해외파견 교환학생 비율'이다. 각각 5.9%와 3.9%로 전년도보다 각각 7.0%pt와 2.9%pt 줄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1위를 기록한 두 지표가 7위와 3위로 낮아짐에 따라, 국제화 부문 종합순위 하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두 지표의 하락 원인에 대해 미래정책원 김성환 계장은 대학평가 지표산출 방식의 변화를 주 원인으로 꼽았다. 김 계장은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국제교육원을 통한 어학연수생이나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학생도 전원 인정했으나, 올해는 그 수를 3분의 1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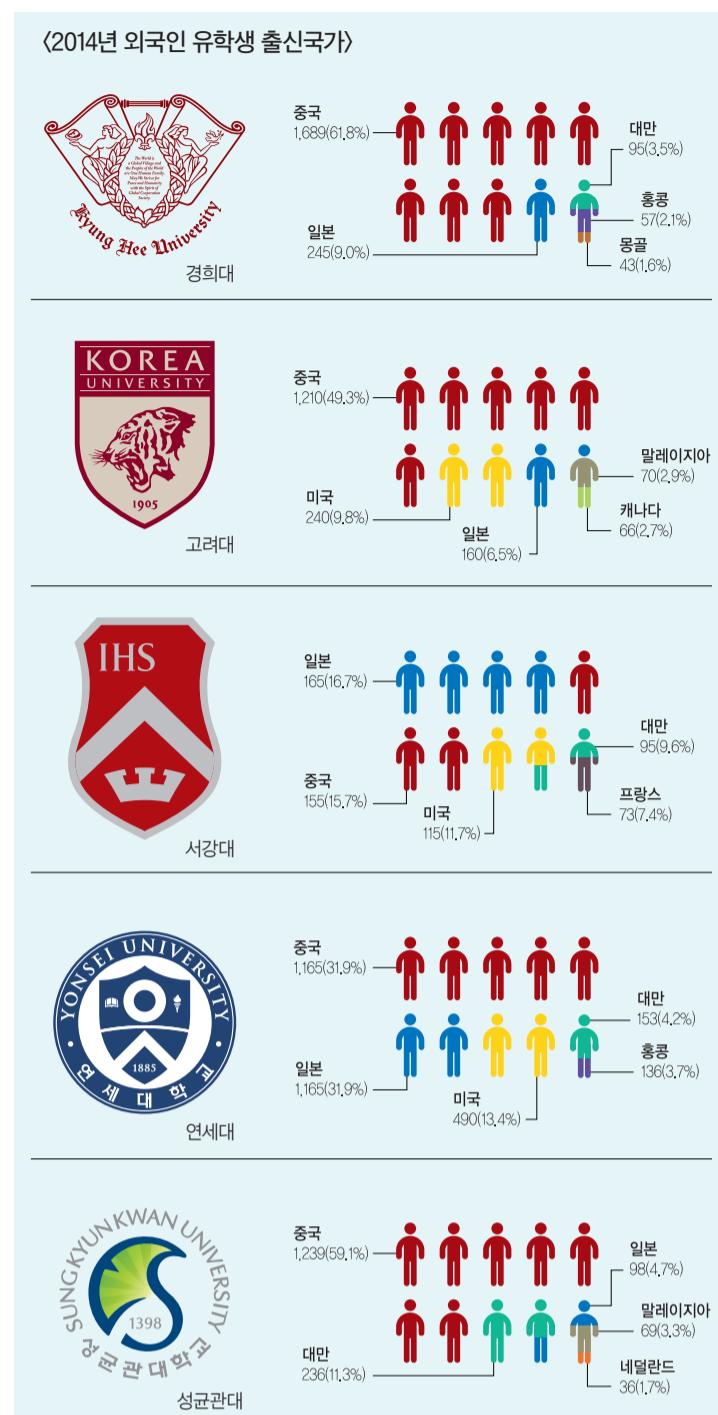
어학연수생과 계절학기만 수강하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연세대 역시 '국내 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비율' 지표에서 작년 12.3%에서 올해 7.0%로 5.3%pt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 교환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대학생 유치실적'은 연세대가 2,390명에서 2,698명으로 오히려 12.9% 상승한 것에 비해 우리학교의 경우 작년 938명에서 올해 713명으로 24.0% 감소했다. 지표방법이 엄격해지면서 수치가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교환학생의 '내실'이 부족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 유학생 다양성'의 경우 별 비율은 중국 61.8%, 일본 9.0%, 대만 3.5%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절대 다수이고, 가까운 동아시아국가 유학생의 비율이 74.3%에 이른다. 다양한 문화권에

서온 학생들과 교류해 글로벌 인재로 발돋움시킨다는 '국제화'의 취지가 무색하다. 반면 연세대의 경우 중국 31.9%, 일본 14.7%, 미국 13.4% 등이었고, 서강대의 경우 일본 16.7%, 중국 15.7% 미국 11.7%를 보여 대조된다.

이밖에 외국인 교수 비율은 최근 3년 중 처음으로 8% 대인 8.5%로 순위 역시 전년대비 4계단 하락했으며,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역시 전년보다 2계단 하락한 3위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강좌비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영어강의 양질화도 이뤄지고 있는지 실상이 궁금하다.



	국내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해외파견 교환학생(%)
성균관대	4.6	4.0
고려대	6.1	3.0
서울대	2.2	1.0
연세대	6.9	1.6
한양대	4.3	6.3
중앙대	3.2	5.1
서강대	4.4	1.9
경희대	5.9	3.9
평균	4.7	3.3

별 비율은 중국 61.8%, 일본 9.0%, 대만 3.5% 등이다.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절대 다수이고, 가까운 동아시아국가 유학생의 비율이 74.3%에 이른다. 다양한 문화권에

화상강의 울상, “필기내용 안 보여요”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국제】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진행되는 화상강의에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화상강의는 서울캠퍼스(서울캠) 또는 국제캠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양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교차 강의이다. 화상강의는 국제캠의 국제경영학과와 서울캠 경영학과가 통합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국제경영학과 학생들이 국제캠에서도 경영학과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시작됐다. 또한 경영학 복수전공의 수요가 높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도 2학기에는 회계원리·

경영정보시스템·조직행동론·생산

운영관리·서비스운영관리·인적자

원관리 총 6개의 화상강의가 개설

됐다. 현재 서울캠 오비스홀 422호

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국제캠 멀티미디어교育관 713호에서 화상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화상강의는 무인카메라가 교수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해 강의를 보여주고, 화상으로 강의를 듣는 학생은 서울캠으로 연결된 마이크를 통해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강의를 듣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화상강의 시스템이 수업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지현(응용수학 2013) 양은 “화면에 칠판이 비춰지지 않고 비춰져도 화질이 흐리다”며 “카메라가 많이 움직여 집중이 어렵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선예슬(의류디자인학 2014) 양은 “회계원리 과목 특성상 문제풀이 과정이 중요한데 필기를 많이 놓치는 것이 큰 타격이다”라며 “마이크가 있지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이나 질문을 실시간으로 보고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수업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영대학 석광세 행정실장은 “장비 보완이나 교수들의 수업배정 등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어 당장의 해결은 어려울 수 있다”며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직접 확인해보고 어떻게 해결할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양적 조사’로는 한계, 학생들 속마음 듣는다

미래대학리포트 2차 연구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인간이란 가치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과 대화하다가 공감이 가면 의지도 되고, 이후에도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교수님과의 논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나댄다’는 말이 원래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앞장서면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7일 언론정보대학원 세미나실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가 진행됐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 전공 사이의 상관정도부터, 학내 소통, ‘시민’과 ‘어른’의 정의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80명의 FGI 참가자를 선발하는데 6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할 만큼 관심도 높았다.

FGI는 ‘미래대학리포트 - 성찰적, 윤리적, 심미적 학문공동체를 지향하는 21세기 미래 대학상’ 연구의 일환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경희 미래리포트’ 출범식에서 1차 질적연구를 시행했다

6월 20일 ‘경희 미래리포트’ 출범식에서 진행한 ‘공상다방(共想茶房)’을 통해 자유롭게 진행된 미래대학상에 대한 토론 이후,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진행하는 2차 연구다. 그동안 학교에서 만족도 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양적 조사’의 특성상 깊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이번에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했다.

연구팀 팀장을 맡고 있는 언론정보대학원 강태완 원장은 “대학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각을 다각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놓쳤던 숨은 의미나 심도 깊은 이야기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1차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담론과 현재 진행 중인 2차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담론 사이에 유사한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FGI 외에도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의,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폭넓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2,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도 병행하고 있다. 연구는 10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 11월 말 최종보고서가 대학본부에 제출될 계획이다.

2014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5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6회 째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판을 거둘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자구성적 글력을 기반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2014년 10월 6일(월)~11월 17일(월) 17:00

■ 대 상: 교수, 교직원

■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첨부한 공식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pr@khu.ac.kr

■ 선정질서: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 여 식: 2014년 12월 중 〈Magnolia 2014-1부 목련회의〉 시상

■ 문 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Towards Global Eminence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안내

2014학년도 2학기 수시 강의평가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수시평가는 평가문항을 별도로 두지 않으며, 수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별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수시 강의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 조회화면에 표시되지 않으며, 교강사에 의해 수업진행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1. 수시 강의평가 진행기간 : 2014. 10. 6(월) 10:00 ~ 11.28(금) 17:00 (8주)

2. 진행절차 : 종합정보시스템→수업/상적/상담→강의평가→수강과목확인 후 강의평가(수시) 선택

3. 입력화면 설명

가. 1.‘강좌내역’ : 선택한 강좌내역을 확인

나. 2.‘평가문항’ : 수업운영에 대한 의견 또는 요청사항”을 개방형으로 기술하고 “저장”을 클릭

다. 3.‘평가내역확인’ : 본인이 일자별로 올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강사 확인여부 피탁 가능

4. 평가내역 수정

가. 수시 강의평가내용의 수정은 담당 교강사 확인 전에만 가능함

나. 평가 화면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클릭

다. 평업창이 뜨면서 작성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문 직접 수정

라. 수정완료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저장’을 클릭하여 이전화면으로 돌아감

5. 첨조 및 유의사항

가. 수시평기는 1강좌당 주 2회까지(총 16회) 의견 개진이 가능합니다.

나. 본 수시평가는 평가자의 인적사항이 교강사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 교강사 확인 전에는 본인이 평가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나, 교강사 확인 후에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경희대학교 학사지원과

국제교육원 외국어강좌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4. 10. 6(월) ~ 10. 28(화)
- Level Test
 - 영어회화 : 10. 28(화), 29(수) 17:30
 - 일본어·중국어·스페인어회화 : 10. 29(수) 17:15
-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11. 3(월) ~ 12. 12(금)
- 개설강좌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형료 포함)
정규 외국어 강좌	영어 회화	Level 1 ~ 6	오전 7:45 ~ 8:45 (월~목)	150,000원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 고급	오후 6:30 ~ 7:50 (월~수·목)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스페인어 회화	오후	초급1	오후 6:00 ~ 7:20 (화·목)	
	초급2	초급2	오후 7:30 ~ 8:50 (월~수·목)	
개강 11.3(월)	Book Club	초급	오후 6:30 ~ 8:00 (화)	110,000원
	Ted Talk	중급	오후 6:30 ~ 8:00 (화)	
	Academic Writing Workshop	중급	오후 6:00 ~ 7:50 (화·금)	
JLPT 문법대책	N3	오후 4:30 ~ 5:50 (화·금)	110,000원	
	N2	오후 6:30 ~ 7:50 (화·금)		
	4급	오후 4:30 ~ 5:50 (화·금)		
	3급	오후 6:30 ~ 7:50 (화·금)		
HSK 대비반	B1	오후 6:00 ~ 7:20 (화·금)	90,000원	
	B2	오후 7:30 ~ 8:50 (화·금)		
DELF 대비반	B1	오후 6:00 ~ 7:20 (화·금)	90,000원	
	B2	오후 7:30 ~ 8:50 (화·금)		

Tel. 02) 961-0081~2

<http://www.ji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